

국별 리포트

#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44천 Km <sup>2</sup>	G D P	1,038억 달러 (2011년)
인구	167백만 명 (2011년)	1 인 당 GDP	623달러 (2011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Taka (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74.15 (2011)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인도와 미얀마, 북쪽과 서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음.
- 1947년 인도(주로 힌두교)에서 분리 독립한 서 파키스탄과 동 벵갈(양 지역 모두 주로 이슬람교)이 함께 파키스탄을 건립한 후, 1955년 동 벵갈이 동 파키스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소외와 불만을 느꼈던 동 파키스탄이 1971년 파키스탄에서 탈퇴하여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였음.
- 2011년 기준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이고, 전체 노동인구의 약 4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2011년 약 1,158명/km<sup>2</sup>)를 기록하고 있으며, 몬순 기후에 속해 매년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전 국토의 1/3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여야간 정쟁 격화로 군부가 2007년 1월 무혈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2년간 통치하였으나,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2008년 12월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이 총선에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하시나 총리가 10년 만에 재집권하여 정국 운영중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제성장률	6.2	5.7	6.1	6.7	6.3
재정수지 / GDP	-6.2	-4.1	-4.5	-4.5	-5.9
소비자물가상승률	8.9	5.4	8.1	10.7	10.1

자료: IMF 및 EIU.

#### □ 민간소비 및 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경제성장 견인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연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09년 상품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3% 감소하는 등 대외부문이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5.7%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 농업부문의 성장, 양허성 차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투자 활성화, 세계 경제의 회복 추세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1년에도 농업 생산의 꾸준한 증가와 해외근로자들의 송금 증가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여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의류 수출 둔화로 2011년 대비 소폭 하락한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수 부족과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방글라데시는 낮은 세금 징수율과 취약한 세수기반, 복잡한 세제 등으로 인하여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2009년에는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시켜 재정적자가 GDP의 4.1%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 정부지출 증가폭이 세입 증가폭을 상회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5%로 소폭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세수 확대를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금징수율이 매우 저조함. 반면 공급이 부족한 전력, 물, 가스 등 필수 자원을 위한 지원과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대비 5.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 2008년 정부의 유가 보조금 삭감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9%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 다시 국제유가 및 주요 교역상품 가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8.1%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수입제품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10.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에도 타카화의 달러 대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후나 농산물의 수확량에 따라 물가 수준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 지속

- 세제가 복잡하고 예외조항이 존재하여 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직접세 징수율이 세계 최하위임.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0/11년 소득세 환급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혁하여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세 등 무역세와 법인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2011/12년 방글라데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대부분 우체국 및 철도 운영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같은 기간 내 재정지출이 25.8%로 더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제조업 기반 취약에 따른 높은 수입의존도

- 방글라데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GDP 대비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33%로 추정됨.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주요 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방적사는 전체 상품 수입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의 경우 정유제품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하여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였음.

#### □ 농업 및 의류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농업부문은 요소비용 측면에서 GDP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노동력의 45%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가 전체의 72%에 달해 정부는 농업분야 개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 의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또한 총수출의 6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

- 방글라데시는 몬순기후에 속해 7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사이클론이 자주 상륙하는데,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 농업 분야에 타격을 자주 입음.
- 식료품 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60%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 경제 구조상 잦은 자연재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줌.

나. 성장 잠재력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1억 6,67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중 95%가 만 65세 이하(15~64세는 61%)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 의류 및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함.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하던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시설의 방글라데시 이전을 고려하고 있음.
- 낮은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열악한 노사관계의 개선이 외국 기업들의 유치 확대에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됨.

□ 풍부한 천연가스 및 석탄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2011년 1월 기준 1,954억m<sup>3</sup>에 달하고 석탄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 방글라데시 정부는 가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가스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고, 이후 미국, 영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압축천연가스(CNG)가 차량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900만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등 양호한 가스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다. 정책성과

### □ 경제구조 개혁과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에 따른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제구조 개혁과 민간투자 장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부과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출가공무역지구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수출기업에 면세를 적용하는 면세기간 제도(tax holidays) 등 세제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또한 방글라데시는 군수산업 및 원자력 발전, 주화 및 화폐 인쇄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국에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국들로부터 가스, 석탄 등의 자원개발과 금융, 병원,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식료품 가격 규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로 물가의 급격한 상승 방지

-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변동환율제 시행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 및 의류산업 수출이 증가하여 외화 유입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식료품 가격 규제 및 완만한 신용대출 증가세로 급격한 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았음.
- 2011년 환율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10.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통화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춤에 따라 수입상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3. 대외거래

### □ 의류 수출 증가 등으로 높은 총수출 증가율 유지

- 2011년 EU가 방글라데시의 수출의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 허용비율을 기존의 30%에서 70%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EU 시장에 대한 의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23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 상 수 지	926	3,556	2,502	424	-332
경 상 수 지 / GDP	1.2	4.0	2.5	0.4	-0.3
상 품 수 지	-6,004	-4,605	-5,484	-7,889	-9,034
수 출	15,502	15,073	19,239	23,856	26,838
수 입	21,506	19,678	24,723	31,745	35,872
외 환 보 유 액	5,687	9,500	9,904	7,775	..

자료: IFS, EIU.

- 서비스수출 또한 2010년과 2011년에 전년 대비 각각 22%, 6.5% 성장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여 총수출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수출증가율은 2010년에 27.3%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도 21.9%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수입의 빠른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 반면 주요 수입품인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수입상품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입액이 2011년에 전년 대비 28% 증가한 3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폭은 79억 달러로 확대됨.
-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필수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 수입액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주요 수입품인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수입상품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입액이 같은 기간 동안 더 큰 폭인 28% 증가한 3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폭은 79억 달러로 확대됨.
-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필수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 수입액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시현

- 방글라데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 수지 흑자로 200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빠르게 축소되어 2010년 약 25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이보다 더욱 감소한 약 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들에서 자국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해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2년에 경상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아와미 연맹이 압도적 총선 승리 후 안정적 집권

- 2006년 10월 칼레다 지아(Khaleda Zia) 총리의 임기 종료 후 총선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자, 2007년 1월 군부가 무혈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음. 이후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과도정부는 2008년 12월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총선을 실시하였음.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jed)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AL)이 총선에서 총 300석 중 229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14개 정당으로 구성된 대동맹(Grand Alliance)의 지지 없이도 집권이 가능하게 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중임.

□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영향력 확대

- 2011년 1월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 지

지 후보 100명, 아와미 연맹 소속 후보 96명이 당선되어 그동안 야당을 과소평가했던 아와미 연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동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EC)의 선거 집행 및 관리 과정에 여당이 개입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 총선이 예정됨에 따라 선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 □ 아와미 연맹의 지지도 하락

- 인플레이션과 전력 공급 부족, 부정부패 지속 등의 요인이 아와미연맹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2014년에 예정된 대선 및 총선에서 현 정권의 집권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2. 사회동향

#### □ 물가상승과 정부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인 총파업 발생

- 2011년 2월 초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높은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대규모 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가 발생함. 이번 총파업은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음.
- 이번 파업으로 대외무역의 90%를 소화하는 치타공에서 화물 선적 작업이 중단되어 방글라데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 □ 거리 시위 발생 확대

- 방글라데시 국민당은 집권 여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폭력시위로 확대되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 파견된 대표단들은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국민당이 2014년 선거 전에 자유 및 공정선거 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에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음.

### 3. 국제 관계

#### □ 인도와의 관계 개선

○ 2010년 1월에 양국간 테러 방지, 국경범죄 척결, 경제협력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민당 집권시절 소원했던 인도와의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개선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도 확산되고 있음.

- 2011년 9월에 인도의 맘모한 싱 총리가 방글라데시를 최초로 방문하여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 □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노력

○ 방글라데시는 현재 가장 큰 교역 국가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인 중국과의 관계가 인도와의 교류 확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앞으로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벵갈만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인도와 중국 두 국가에서 무역과 원조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 태도

<표 3>

주요 외채관련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총 외 채 잔 액	22,880	23,802	24,963	25,293	25,239
총외채잔액/GDP	28.8	26.7	25.1	24.4	23.0
D. S. R.	5.0	5.6	4.7	4.7	4.7

자료: IFS, EIU.

□ 단기외채 증가

- 방글라데시의 총외채 규모는 2011년 말 약 253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단기외채는 전년도 39억 달러에서 약 16% 증가한 45억 달러 수준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이 39%에서 58%로 크게 증가함. 그러나 외채의 70%가 만기 30년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이며, 나머지 30%의 경우도 평균 대출기간이 20년 이상임.
- 2011년 말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7%,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3%로 추정됨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방글라데시는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국내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분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수행하여 갑작스런 외부 요소에 의한 외화유출급증과 이에 따른 외채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 (2012. 3)	D1 (2011. 3)
OECD	6등급 (2011. 3)	6등급 (2010. 4)
S&P	BB- (2010. 4)	-
Moody's	Ba3 (2010. 4)	-

- S&P와 무디스는 2010년 4월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외화표시장기채권에 대해 각각 BB-(Stable)과 Ba3(Stable) 등급을 부여하였음.
- I.I.: 114/178 (2010. 9) → 118/178 (2011. 3) → 106/178 (2011. 9)
- I.C.R.G.: 98/140 (2010. 11) → 104/140 (2011. 3) → 116/140 (2011. 2)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민간부문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 문화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약(1983), 투자보장협정(1986),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과학기술협력협정(199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방글라데시와의 교역 규모는 2009년에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입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11억 8,579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다시 큰 폭 확대되어 16억 9,362만 달러를 기록함.

<표 5>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1,064	1,554	1,628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석유제품, 종이제품
수 입	122	139	244	가죽, 동제품, 의류
합 계	1,186	1,693	1,872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와의 교역 규모는 2009년에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입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11억 8,579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다시 큰 폭 확대되어 16억 9,362만 달러를 기록함.
- 2011년에는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합성수지, 아연제품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양국간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18억 7,183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말 기준 207건, 2억 5,911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였음.

□ 집행 기준 제3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

- 대 방글라데시 EDCF 집행금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11건, 2,744억원을 기록, 제3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임. (승인기준 총 16건, 5,534억원)

VI. 종합 의견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연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11년 농업 생산의 꾸준한 증가와 해외근로자들의 송금 증가에 힘입어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의류 수출 둔화로 2011년 대비 소폭 하락한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세금 징수율,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까지 수입의 지속

적인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에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2008년 12월 총선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쟁으로 인한 국정 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2014년 총선 및 대선이 시행될 때까지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재정수입에 따른 투자 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양허성 차관을 위주로 국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 및 물가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